

사이토 소노조 등 봉납 노래액자

분큐 3 년(1863) 오아나의 사이토 소노조, 다키노이의 구와가, 쇼하쿠(야쿠엔다이)의 린추 등 미야마 근처에 사는 하이쿠 시인들이 주최자가 되어 당시 에도(도쿄의 옛 지명)의 저명한 하이쿠 시인이었던 고산도 다쿠로 등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니노미야 신사에 하이쿠 노래액자를 봉납했습니다.

노래액자는 니노미야 신사 배전 안에 걸려 있습니다. 가로 376cm 세로 107cm 의 커다란 느티나무 통목 판에 니노미야 신사 주변 21 개 마을 주민과 에도.이치카와 사람들을 포함해 총 80 명이 지은 하이쿠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화로운 장식은 에도의 명장 노가와 호겐 다이라노 도모사토가 담당했습니다.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사이토 소노조는 덴메이 2 년(1782)에 오아나무라(현재의 후나바시시 오아나)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이쿠를 좋아했고, 에도에서 활약하고 있던 고명한 하이쿠 시인에게서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후나바시를 대표하는 하이쿠 시인입니다.

소노조의 하이쿠 옆에는 '82 노인 소노조'라고 새겨져 있어 당시 그녀가 82 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액자는 에도시대 후기에 하이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시인 사이토 소노조의 인품과 발자취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노래액자에 새겨진 하이쿠의 일부]